

신임 농진청장에 김재수씨, 산림청장에 정광수씨



김재수 농진청장

신임 농진청장에 김재수 농수산물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김재수 농진청장은 1957년 경북 영양 출생으로 경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과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 등을 거친 농정전문가다. 지난 1월 23일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산림청장에는 정광수 산림청 차장이 임명됐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1953년 강원 춘천 출생으로 산림청 산림자원 국장과 국립산림과학원장, 산림청 차장을 거쳐 이번에 청장



김재수 산림청장

으로 승진하게 됐다. 정 청장은 지난 1월 23일 취임식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산림부분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임업인의 소득을 늘리고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22일 농림수산물식품부 제1차관에 민승규 청와대 농수산물식품비서관을, 제2차관엔 하영제 산림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aT센터,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출범

aT센터(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윤장배)는 지난달 30일 유통단계 단축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를 출범<사진>시켰다.

그동안 농식품부와 aT는 산지·소비지간 농식품의 직거래 시스템 구축 및 국내 농축수산물 식품의 종합 포털사이트 구축·운영을 골자

로 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를 태동시키기 위해 전문가문단 실무협의회와 사이버거래 이용예상자 대상으로 수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설립방안을 마련했다.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는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상품코드 및 카탈로그 표준화 등 인프라를 구축해 규격화가 갖춰진 품목을 대상으

로 대규모 사이버거래(B2B)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향후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판로 확보와 신뢰 구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친환경·명품농산물 생산 농가와 소비자의 안심 농산물 구입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

하여 B2C도 수행하게 된다.

B2C 판매는 시도추천 농가 친환경농산물 및 명품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거래소 인증' 마크를 부여한 후 사이버거래소에 진열 판매할 예정이다.

〈축산신문〉

농식품부 '농식품 안전관리 개선 방안' 마련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안전정보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 정보공개를 확대키로 했다. 또 각종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과학적 안전성 검사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식품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 2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과학적 검사 체계 구축을 위해 Codex의 무작위 샘플링 권장기준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여 더욱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재 규제조치를 전제로 한 검사위주의 안전성 관리로 취약했던 미지의 유해물질 검색, 안전성 수준진단 등을 위한 조사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안전성 검사와 별도로 신종 유해물질, 위반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 등을 찾기

위한 과학적 탐색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성 수준 진단, 국민의 유해물질 섭취량 산정 및 정책수행 효과 평가를 위한 종합적 잔류조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생산단계에 치중되어 있는 안전성 검사를 학교와 같은 집단급식소 식재료 및 지역특산물 등으로 확대하여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특히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부재와 불확실한 정보 전파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개주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자료도 함께 제공하여 식품안전정보 부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생산자 대표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좀 더 거쳐 안전성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농식품부, 올 농림기술개발 지원사업 '885억' 투입

농림수산식품부는 산·학·연을 대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농림기술개발사업의 금년도 추진 계획을 확정·고시했다.

금년 농림기술개발사업에는 전년보다 20% 증가한 885억원이 투자되며 그중 427억원은 올해 새로 선정될 연구과제에 지원되고, 428억원은 기존에 선정된 계속과제에 지원된다.

올 연구개발 사업은 강한 농식품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 농식품 수출증대 및 신수요 창출 기술개발에 중점을 뒀다.

정부가 연구주제를 제시하는 기획연구는 농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생산 기술,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생산 기술, 수출증대를 위한 농식품 개발, 농식품 안전관리 기술, 에

너지절감 기술 등 총 22개 과제가 선정됐다. 향후 3~5년간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반기술 개발에 70억원, 신제품 개발 분야에 184억원, 한식세계화를 위한 식품연구에 67억원, 수출입 농식품 안전기술 개발에 2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도 더 한층 강화된다.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팀은 매년 실적에 대한 연차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하위 10% 과제는 연구비 삭감 또는 조기중단 조치된다.

금년도 과제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농림기술관리센터 홈페이지(www.arp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산신문〉

※ 정정보도

1월 협회보 17p 게재된 16대 양봉협회 임원 중 신상필 이사와 송기봉 이사의 지역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사 신상필(경북)



이사 송기봉(전북)

1월 협회보 21p 선거관리위원 중 이성배 부위원장이 자문위원장으로 잘못 기재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양봉